“윤동주 시인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

제4회 동주문학상 수상 정현우 시인

수상소식에 “산타가 선물 두고 간 느낌”
초등생때 접한 첫 시집이 윤동주 작품집
향후 문학작품 토대로 음악 작업 계획도

정현우 시인 〈정현우 제공〉

제4회 동주문학상에 선정된 정현우 시인은 “윤동주 시인의 맑고 청신한 이미지를 보면서 시라는 장르를 알아갔다”며 “후쿠오카 감옥에서 윤동주 시인이 숨을 거두기 직전, 많은 주검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린다”고 밝혔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시인은 수상 소감과 시를 쓰게 된 계기, 문학청년 시절, 향후 계획 등을 풀어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제4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제가 받을 지는 몰랐다. 이전에 수상한 분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몰래 선물을 두고 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윤동주 시인은 어떤 문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윤동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비함과 순결성이 떠오른다. 좋아하는 시는 ‘돌아와 보는 밤’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듯하다. 또 하나 동주 하면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빼놓을 수 없다. 정서적 괴로움으로 제 2의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시를 쓰는 과정에서 윤동주 시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뭔가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게 있나? 싶기도 하다) 시를 처음 알게 됐던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집에 딱 두 권의 책이 있었다. 윤동주의 시집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었다. 당시 집이 가난해 세계동화전집도 사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고 슬픔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그날 어머니께 동화책 전집을 사달라고 떼를 썼는데 다음날 엄마가 사온 책이 윤동주 시집과 릴케 시집이었다. 시집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그게 윤동주 시집이었다는 것도 중학교 올라와서 알게 됐다. 지금도 그 두 권 시집을 가지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어려웠지만(웃음) 뭔가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번 수상작은 어떤 작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영화를 여러 번 봤다. 감옥에서 생체실험을 당하는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기도 했다. 나의 자아를 시인에게 투영시키기도 해봤다. 우리 자신을 투시하고 투영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나의 자아를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의 마음을 살짝이라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를 쓴다.

-시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다. 문학청년 시절 어떻게 창작 공부를 했나.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 2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에 백일장 대회가 있었다. 거기에 시를 보내 대상을 받았다. 그때 내게 뭔가 시를 쓰는 능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상품으로 디지털피아노를 받았다.(웃음) 이후로 계속 시를 썼기 때문에 대학 졸업 전에는 등단을 하겠지 생각했다. 쉽게 봤다가 제대로 큰 코를 다친 격이다.(웃음) 제대로 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쓴 것은 군대에서 엠뷸런스 운전병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 친구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의 감정을 시로 옮겨 놓은 작품 ‘면’이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시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니 왜 시를 쓰는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수많은 정의와 표현들이 있겠지만 시는 내 슬픔을 표현하는 유리알 같은 거다. 시를 쓸 때 슬픈 감정이 들 때 비로소 펜을 든다. 가슴에 쌓아두었던 감정 같은 것들이 유리알로 모여들면 그걸 하나씩 꺼내서 쓴다고나 할까. 또한 시는 이미지를 추적하고 언어로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의 세계관이 불안하게 축조돼 있는 건물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딱히 거창한 계획은 없다. 무조건 열심히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다. 지금 앨범도 작업하고 있다. 문학작품을 토대로 노래를 만드는 작업이다. 얼마 전에 ‘시인의 악기상점’이라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더 멋진 문학작품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알리고 싶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주해외작가상에 완도 출신 정국희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정용진 시인

동주문학상 본상과 함께 ‘동주해외작가상’과 ‘동주해외작가특별상’ 부문 수상자도 가려졌다.

동주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땅을 거처로 삼았다’ 외 4편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정국희 시인은 완도 출신으로 경희사이버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창조문학’,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정 시인의 작품에 대해 “시와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미학적 자의식, 그리고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상상력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며 “언어의 이면에 만만찮은 깊이를 거느린 운명의 심연을 응시해가는 그의 눈길도 안정감을 주었다”고 평했다.

정국희 시인

정용진 시인

정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일가친척 하나 없는 이민 생활은 더러 힘들고 서러울 때가 있다”며 “누군가에게 일러바치지 못한 것들이 고스란히 시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윤동주 선생의 민족애에 대한 뜻을 시 창작을 매개로 이어가는 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정용진 시인은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73년 ‘지평선’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샌디에고 문장교실을 운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 시인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미력하지만 동포 문학 성장에 역할을 하는 것이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기리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극으로 상생

장애인극단 그래도 ‘어서오세요! 홀더입니다’ 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휠체어를 탄 이들부터 대화가 불편한 이들까지. 장애를 딛고 열정을 펼쳐보이는 이들이 전하는 치유와 상생의 메시지를 연극 무대로 만난다.

장애인극단 ‘그래도’가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창작극 ‘어서오세요! 홀더입니다’를 무대에 올린다. (사)실로암사람들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29회째를 맞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 ‘하나된 소리’로 기획됐다.

2012년 창단한 극단 ‘그래도’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수혜자를 넘어 문화 창조자로, 예술인으로 성장하고자 구성된 단체다. 이번 공연은 이들의 11번째 공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극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해 지난 7월부터 40여회에 걸친 이론교육, 연기훈련, 공연연습을 진행했다.

이번 작품에는 카페 홀더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듯이, 카페 홀더도 도움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담겼다. 작품은 ‘도가니 사건’으로 잘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사건’ 피해 학생들이 광산구청, 상무지구 등지에서 실제로 운영했던 ‘카페 홀더’의 탄생 배경을 풀어내고, 카페에서 생긴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그린다. 각종 기상천외한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카페 홀더에서 ‘자살 모임’을 갖는 비장애인들. 카페에서 일하던 장애인 종업원들은 이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각각의 사연을 들어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배우들의 언어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무대 뒤 영상을 통해 자막이 제공되며, 무대 근처에 배치된 수어 통역사의 수화 번역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날은 최승규·장지호·서지혜·김소라 등 12명의 배우가 무대에 오르며, 특별출연으로 실로암수화중창단, 샌드아티스트 주홍 작가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윤경미 작가와 황민형 연출가가 참여하고 ‘공연창작소 아라리연’이 제작을 도왔다.

황민형 연출가는 “장애인부터 비장애인까지 찾아온 모든 관객들이 이번 작품을 ‘장애인 극단이 하는 공연’으로 보지 않고, 같은 사람으로서 공연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애인극단 ‘그래도’ 배우들이 24일 선보이는 연극 ‘어서오세요! 홀더입니다’를 연습하고 있다. 〈(사)실로암사람들 제공〉

나주박물관 ‘마한문화 아카데미’ 가을학기 강좌

지난 2015년 시작돼 호응을 얻고 있는 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의 ‘마한문화 아카데미’ 가을학기가 17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8일(매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박물관 강당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강좌는 ‘역사 속 예술이야기’를 주제로 우리의 음악과 소설, 그림, 시 등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24일 강좌는 송양섭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임진왜란’을, 엄태웅 고려대 국문과 교수가 ‘‘구운몽’과 ‘옥루몽’에 나타난 욕망과 꿈’을 강의한다. 31일에는 강제훈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와 이형대 고려대 국문과 교수가 각각 ‘‘춘향전’과 ‘흥부전’으로 읽는 조선시대’, ‘조선의 몽상적 탈주자 ‘허난설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11월 7일에는 예술의 고장 진도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운림산방, 남도진성, 용장성, 장전미술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14일에는 박제광 건국대 박물관 학예실장이 ‘친필일기(난중일기)로 만나는 인간 이순신과 장군 이순신’을 강의하며 21일에는 이선옥 의재미술관 관장이 ‘사군자 ‘매란국죽’으로 피어난 선비의 마음’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마지막 시간 28일에는 김용택(사진) 시인이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를 주제로 감성적인 글쓰기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현장 접수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주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